

환경운동연합의 국제이해교육 실천사례

* [2006, 장미정, 제7차 국제이해교육 학술대회
 '다문화 사회와 국제이해교육(Multicultural Society and EIU)' 자료집 중에서 발췌

환경운동연합의 국제이해교육 실천사례

최근 환경운동연합과 환경교육센터에서 기획 진행되어 온 대상별 다양한 프로그램들 중에서 국제이해교육과 관련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.

(1) 에너지, 생태, 대안사회

- 에너지 이슈는 국제적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다. 에너지의 생산국과 소비국이 다른 현실,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에너지 정책에서 야기되는 지구 온난화 현상, 핵에너지 등의 이슈는 국제이해교육에 있어서도 중요한 주제로서 다루어져야 한다.
- 에너지의 문제가 결국은 생태계의 균형으로 연관되며, 때문에 숲이나 습지기행, 철새탐조 등의 활동으로 연결시키거나 대안사회에 대한 내용으로 연결시킬 수도 있다.

사례1. '생명의 땅, 부안에서 여는 에너지 생태학교' - 초등학교, 3박 4일(환경연합 환경교육센터)

- 재생가능 에너지에 관련된 견학이나 탐방 프로그램을 비롯해서, 에너지퀴즈, 에너지 장난감 만들기 프로그램 등을 진행.

주요 프로그램

[첫째날, 바람으로 여는 길] 풍력단지 견학, 철새기행, 움직이는 태양에너지 학교, 공동체 놀이
 [둘째날, 자연으로부터의 에너지] 에너지 이야기, 자연에서 얻는 에너지 만들기, 에너지퀴즈대회, 마을 어르신과의 만남, 들꽃 차 체험, 천연염색과 생명살림 현수막 만들기, 공동체놀이, 밤으로의 여행
 [셋째날, 부안의 생태문화] 겨울 숲 만나기, 새만금 방조제, 해창갯벌 견학, 내소사 전나무 숲 체험, 자연놀이 및 곰소염전 체험, 모듬별 발표회, 대동놀이
 [넷째날, 에너지의 미래] 제로하우스 및 친환경 에너지 현장견학

사례2. '나와 자연, 그리고 대안 사회를 찾아서' - 대학생, 3박 4일(환경연합 환경교육센터)

- 친환경농가 및 생협 방문, 재생가능 에너지 토론 및 강의, 대안학교 방문;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강의에 앞서 에너지 문제의 핵심인 핵발전소 증설에 대한 찬반토론을 배심토론의 형태로 진행

주요 프로그램

[대안사회를 찾아서] 전통문화와 먹을거리, 생태마을과 먹을거리, 위대한 평민이야기, 친환경농가 및 생협 방문, 대안학교, 대안에너지 이야기, 핵발전소 증설에 대한 찬반 배심토론_ 터부토론
 [자연을 찾아서] 철새탐조활동, 숲생태 탐사, 생태마을 탐방
 [나를 찾아서] 몸으로 말하기, 가장 소중한 것, 나에게 편지쓰기